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정규예배 시 '생활 속 거리두기(1m)' 방침에 따라 본당 지정된 예배석에 앉으셔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내년도 교회달력이 나왔습니다. 필요한 수량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4. 이번 주 토요일 (12/19) 청소년당은 카자흐스탄 목장(권용기 집사)입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12/20) 주일간식담당은 아가페 목장(김경미 권사)에서 섬기겠습니다.
5. 다음 주, 주일나눔예배 후에 이어서 예·결산을 위한 연말 제직회 및 공동의 회를 가지겠습니다. 참석 부탁드립니다.
6. 12월 추천도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물 심장, 고장 난 심장>,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본당 뒤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날짜	12월 13일	12월 20일	12월 27일	1월 3일
예배기도(2부)		유중열 장로	신태식 장로	권용기 집사	오진석 집사
예배기도(오후)		'코로나19'로 인해 없습니다.(추후 변경 가능)			
주일간식담당 (점심식사 No)		야베스참치 (추준형 집사)	아가페목장 (김경미 권사)	엘리목장 (신경미 권사)	미정
토요일청소(고정)		우즈베키스탄목장 (첫째주 토요일)	캄보디아목장 (둘째주 토요일)	카자흐스탄목장 (셋째주 토요일)	미정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2020년도 남·여 목장과 섬기는 목자들을 위해서
2. 수술 후, 자택에서 회복중인 신동기 집사님의 쾌유를 위해서
3. 대입 시험을 치르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신위형, 안성진, 추현희)
4.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5.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섬터(함안), 온누리비전교회(양구) 사역지와 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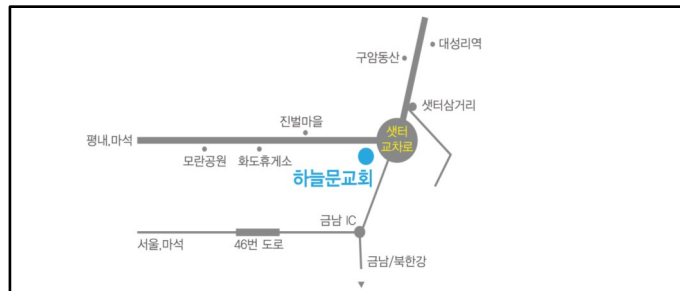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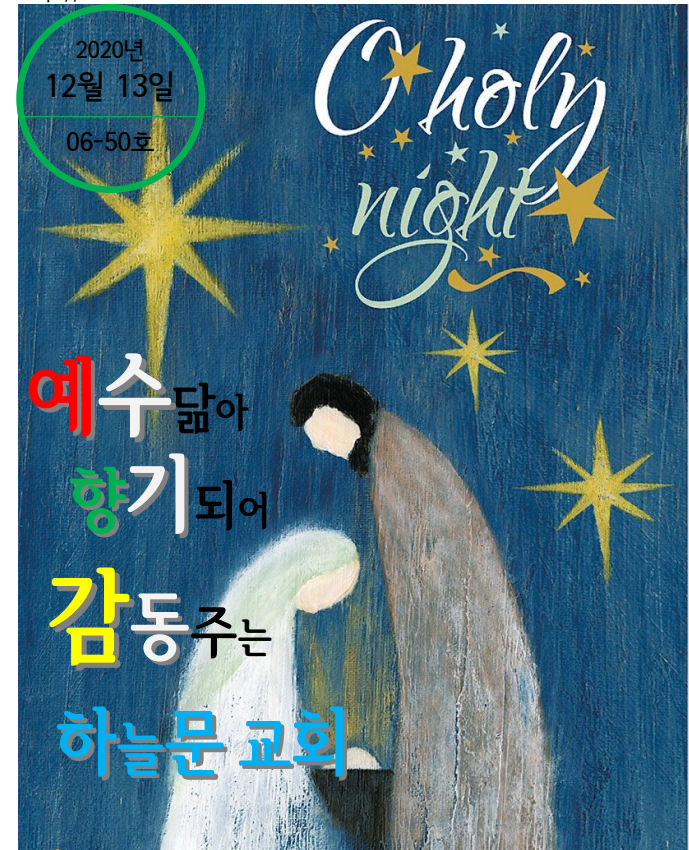


섬기는이 ■ 부목사 : 김묘상 ■ 전도사 : 박일선 ■ 시무장로 : 유중열, 김윤식
■ 협동장로 : 신태식 ■ 반주자 : 신혜인, 허찬송 ■ 방송실 : 권다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1부(오전 9:30), 2부(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서교독 교독문 117번(구주강림3)	다같이
*경배찬송 15장(통 55장)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324장(통 360장)	다같이
대표기도	1부:인도자, 2부:유종열장로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마 6:25-34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일용할양식'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인도자
*결단송 620장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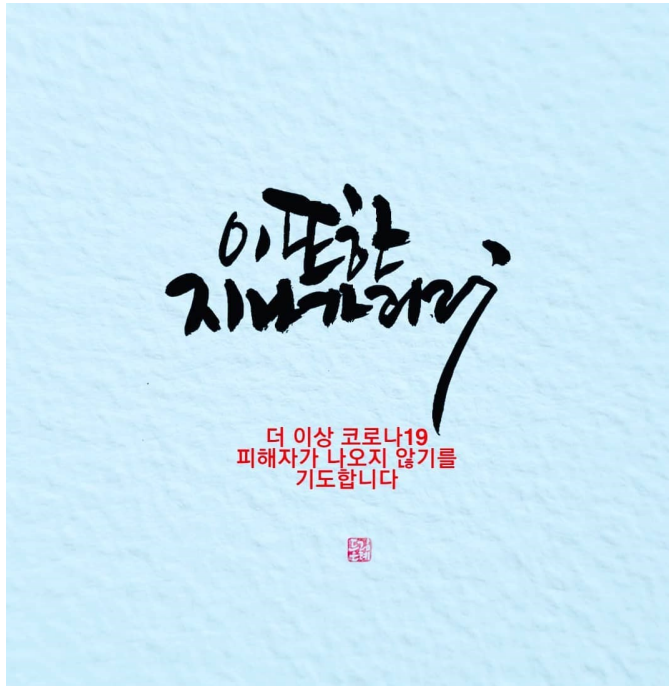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쉽니다.’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로마서 강해 허영진 목사
롬 8:11-17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1)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올바른 과녁을 향한 기도'(131)

새벽기도회 새벽 5:30 <하늘문의만> 말씀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니다.◆

수고로운 손길

새벽 5시, 새벽기도회를 위해 성전에 붙어 켜지는 시간이다. 이르면 이른 시간이다. 그럼에도 새벽을 깨우는 수많은 이들이 교회 앞 도로를 지나간다. 새벽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는 이들을 태우려는 버스, 이른 출근을 위해 내달리는 자가용,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운동하러 가는 이들,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는 새벽 모습이다. 그렇게 어두커니 보고 있다 정적을 깨우는 차량 소리에 화들짝 놀란다. 교회 정문 쪽을 바라보면 환경미화원들을 태운 청소차량이 부리나케 달려와서 분리수거한 쓰레기를 짹짹 싣고 가는 다음 행선지로 떠난다. 늘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내가 잠든 사이에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점점 무렵이면 핸드폰에 당일 받을 택배 안내문이 뜬다.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다녀갔는지 교회 안 지정된 장소엔 택배상자가 놓여 있다.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주문한 다양한 생필품이 배송된 것. 무심코 박스를 뜯으려는데 종이 상자 너머로 내가 알지 못한 사이에 움직인 사람들의 수고가 보인다. 며칠 전 내가 주문한 상품을 배송하기 위해 누군가 분주한 손목으로 물건을 포장했을 테지. 동 트기 전 물류센터에서는 누군가가 고된 여객로 물건을 분류하고 화물차에 싣느라 애썼을 것이다. 주문한 물건을 꺼내려면 박스를 열고 스티로폼을 빼고 돌돌 말린 비닐을 벗겨야 한다. 내가 주문하지 않았으나 알맹이와 함께 딸려온 포장재들이 바닥에 수북이 쌓인다. 그 다음은 또 어떤가. 오늘 밤 내가 분리해서 내다놓은 이 쓰레기들은 누군가의 수고로운 손길에 의해 수거차량에 실릴 것이다. 이른 새벽, 커다란 수거차량에 매달린 채 차가운 밤공기를 가르며 애쓰는 이들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이렇듯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노동의 흔적이 쌓여서 또 한 사람의 무탈한 하루가 시작된다. 밤이 아침과 연결되며 순환하듯 수고로운 순간들이 겹겹이 쌓이고 포개지면서 나와 타인이 연결되는 것이다.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보이는 것 너머에서 수고한 사람들의 손길을 조금 더 헤아려보게 된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믿음이란 달리 말하면 내가 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수고로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다. 어둠이 바탕이 되어 버린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붙드는 이는 자신의 인생여정에서 옷을 거리가 많을 게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느라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금 붙들자. 수고로운 손길을 감지할 것이다. 추운 겨울이다. 혹 알지 못한 사이에 다녀가는 택배기사나 우체부 아저씨를 위해 손난로 핫팩이라도 비치하려고 한다. 잠들어 있느라 보지 못했던 순간들을 이제는 조금 더 명민하게 바라보며 살고 싶어서.

Written by 허영진